



영국 가계보험 현황과 전망

이아름 연구원

영국 가계보험은 주택의 노후화 심화와 영국인들의 단독주택 선호 경향으로 최근 성장세임. 향후 영국 가계보험 시장은 기후변화, 스마트홈 기술 발전 및 소비자의 스마트기기 활용도 상승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현재 저소득층 및 임대 주택 세대들은 보장이 부족하므로 영국 가계보험 회사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개발한다면 성장할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담보대출 승인을 감소로 인한 주택수요 둔화, 가계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인식 등은 가계보험 시장 확대의 걸림돌임

■ 영국 가계보험은 주택의 노후화 심화와 영국인들의 단독주택 선호 경향으로 최근 성장세이며, 비교사이트(Comparison Site)를 통한 판매 비중이 높게 나타남

- 2018년 영국 가계보험의 총 수입보험료는 2017년 64억 9천만 파운드에서 2.1% 증가한 66억 2천만 파운드를 기록하며 판매가 증가하고 있음¹⁾
- 영국의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Detached House)²⁾, 세미 단독주택(Semi-Detached House)³⁾, 테라스 하우스(Terraced House)⁴⁾, 아파트(Flat) 등 4가지 종류로 분류되는데, 그 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평균수명이 128년에 달할 정도로 노후화 되어 있어 가계보험의 필요성이 높음
- 영국의 가계보험은 가재보험(Contents Insurance), 주택보험(Buildings Insurance), 종합보험(Combined Insurance)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대부분 비교사이트(Comparison Site)를 통해 판매됨
- 비교사이트를 통한 각 보험의 판매는 2019년 각각 29.3%, 33.5%, 24.9%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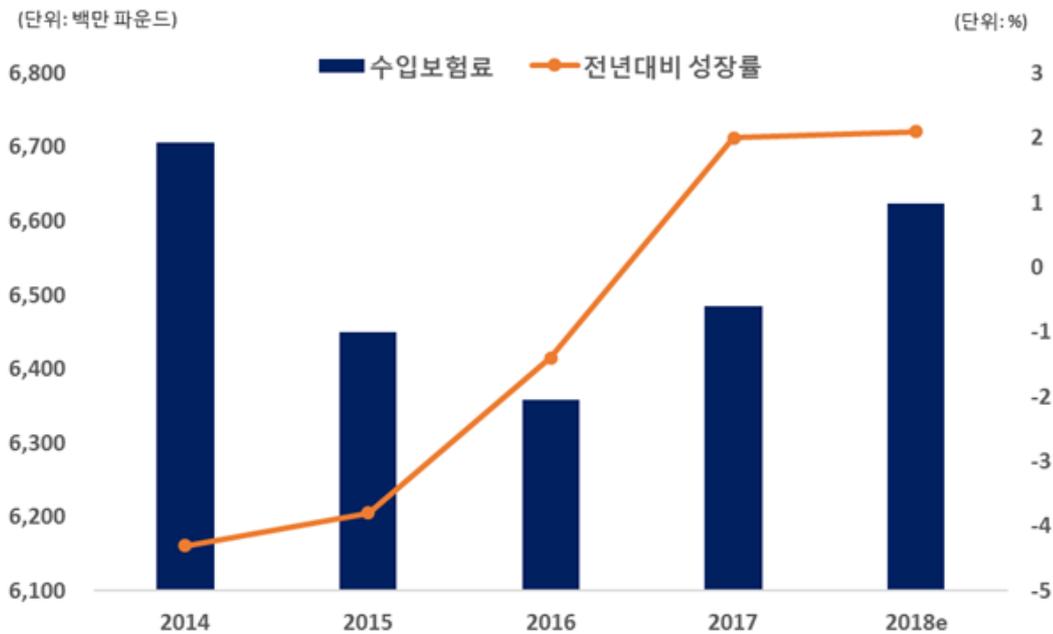
1) GlobalData(2019. 7. 5), "Automated home in insurance"

2) 주택의 전후 면에 정원을 가지고 있으며 주방, 거실, 화장실, 욕실, 방 3~4개, 독립 또는 통합된 실내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음

3) 두 채의 집이 서로 벽과 지붕을 맞대고 그 중심선을 기준으로 안과 밖이 마치 거울처럼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우리나라 아파트처럼 천장과 바닥을 이웃과 공유하는 대신 옆집과 벽을 공유하는 형태로, 콘크리트가 없어 건축업자들은 빨간 벽돌과 시멘트를 기본 자재로 집을 지었음

〈그림 1〉 영국 가계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자료: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ABI) & GlobalData

■ 향후 영국 가계보험 시장은 기후변화, 스마트홈 기술 발전 및 소비자의 스마트기기 활용도 상승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강우량 증가와 관련된 누수로 인한 보험금 청구 건수가 2017년 전년 대비 28%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날씨 관련 보장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있음⁵⁾
 - 누수로 인한 보험금 청구 건수는 2015년과 2016년 각각 전년 대비 21%, 26% 증가하였고, 2018년 3/4분기 전체 보험금 청구액의 30%를 차지함
- 최근 스피커, TV, 냉장고, 오븐, 식기세척기, 온도 조절장치, 보안카메라 등 가정 내 기기들을 연결하고 이를 앱이나 음성인식을 통해 작동하는 스마트홈 기술이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가계보험 니즈 증가가 예상됨
 -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7.4%는 현재 스마트기기를 사용 중이며, 17.2%는 향후 사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⁶⁾

■ 또한, 현재 저소득층 및 임대 주택 세대(Generation Rent)들은 보장이 부족(Underinsurance)⁷⁾하므로 영국 가계 보험 회사들이 이들을 타겟으로 한 상품을 개발한다면 성장할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5) Chartered Insurance Institute(2019. 1), “Escape of Water for Claims Professionals”

6) GlobalData’s 2019 UK General Insurance Consumer Survey

7) 적정한 보장금액과 현재 준비해 놓은 보장금액의 차이를 뜻함

- 영국 재무부(HM Treasury)와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 따르면, 가계소득 기준 하위 10~15%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60~80%는 보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젊은 세대의 임대 주택 세입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가계보험 보장 부족은 증가하는 추세로, 향후 스타트업, 보험회사 인수어테크 회사는 동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 개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담보대출 승인율(Mortgage Approval Rates) 감소로 인한 주택수요 둔화, 가계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인식 등은 가계보험 시장 확대의 걸림돌임
-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2018년 담보대출 승인율이 전년 대비 2.0% 감소하는 등 담보대출 승인율 감소로 인한 주택수요 둔화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가계보험의 신규 가입자 감소를 야기할 수 있음
 - 한편, 2019년 주택보유자가 구매해야 할 주택보험을 세입자의 9%가 구입하는 등 아직까지 가계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도 가계보험 성장의 걸림돌임 **kiri**